

---

2022

# Porter Prize Excellence in CSV

제9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업 사례집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연기 없는 미래(Smoke-Free Future)’에 따른 공유가치창출



**담배시장에서 변혁을 주도해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이 일반담배를 대체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뿐 아니라 성인 흡연자와 사회 전반에 걸친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Background(배경)

한국필립모리스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의 현지법인으로 1989년 4월 설립되었다. 17년 ‘담배연기 없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국내 최초로 혁신적 히팅 방식의 비연소 제품인 아이코스(IQOS)와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HEETS)를 출시하며 성인 흡연자에게 일반 담배 대비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해왔다. 18년부터는 양산공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히츠(HEETS)를 생산했다. 22년 한국필립모리스는 차세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인 아이코스 일루마(IQOS ILUMA)를 출시했으며, 양산공장에서는 전용 담배 제품인 테리아(TERIA)를 생산하고 있다. 서울 본사와 양산공장, 그리고 전국의 영업 사무소에서 약 1,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Activities

### 1) 기술 혁신 통한 담배연기 없는 미래 가속화

####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 출시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11월 차세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인 아이코스 일루마(IQOS ILUMA)시리즈를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했다.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는 아이코스 제품 중 흡연을 지속하는 성인들을 위한 가장 혁신적이고 진일보한 비연소 제품이다.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에는 새로운 방식의 담배 가열 시스템인 스마트코어 인덕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블레이드가 없고 클리닝이 필요 없다. 기존 아이코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아이코스 일루마는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이 일반 담배 대비 평균 약 95% 감소됐다. 기존 소비자 불편을 상당 부분 해결한 아이코스 일루마의 출시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담배연기 없는 미래 실현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필립모리스의 모기업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2008년 이후 92억 달러(한화 약 13조원)이상, 전체 R&D 금액의 99%를 태우지 않고 가열하는 아이코스과 같은 비연소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980명 이상의 과학자 및 연구 인력과 함께 성인 흡연자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사회적 활동 전개:** 한국필립모리스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의 대형 사업장, 공공장소, 영화제 등에 전자담배 전용 공간인 베이핑룸을 설치하여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관광지나 마을 주변에 버려진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줍는 나공치(나부터 공치를 치우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2만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75만여 개의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수거했다.

## 지속 가능성 전략은 지속 가능성 ‘중대성 평가’로부터



### Performance(성과)

22년 9월 30일 기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비연소 제품은 전 세계 7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적으로 1,350만 명 이상의 성인이 일반 담배를 끊고 아이코스로 전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21년 기준 필립모리스의 순매출 비중에서 비연소 제품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환경 공장을 지향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환경경영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타 이거 캠페인’과 같은 전 사업장 규모의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일상 속 자원절약 노력에 더해 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투자까지 실행하는 것으로, 20년 기준 723톤의 탄소 배출량(약 11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을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해 19년 말 공장 내 모든 수도꼭지에 물 절약 장치를 설치했고, 20년에는 냉각탑에 재활용수 급수 장치를 설치해 물 소비량을 전년 대비 50% 줄였다. 양산공장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1년 국내 담배업계 최초로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인증을 취득했다.

### Process

‘담배연기 없는 미래’의 선도 기업으로서 한국필립모리스는 공중 보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제품 출시 및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혁신 전략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필립모리스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중대성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지속가능성 주제에 미치는 임팩트를 평가한 뒤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중대성 평가’를 통해 회사에 가장 큰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시켜오고 있다.

### Future(전망)

필립모리스는 25년까지 전체 매출에서 비연소 제품이 차지하는 순매출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전세계 4,000만명 이상의 성인 흡연자들을 아이코스와 같은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필립모리스의 비연소 제품 판매 국가를 100개국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탄탄한 기반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웰니스와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하고, 소비자 및 환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혁신적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25년까지 웰니스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간 순 매출 1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경영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저탄소 전환 플랜’을 시행하며 25년에는 직영 채널, 40년에는 모든 밸류 체인의 ‘탈 탄소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용수 절감 활동, 모든 제조 과정에서의 삼림 벌채를 중단하는 등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